

# 청년 창업 지원 · 혁신도시 하수처리 개선 '합심'

### 전북도 - 전주시 - 완주군, 상생협력사업 추진 4차 협약... 향후 다양한 분야 상호 협력해 주민편의 · 공동발전 다짐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27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4차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장소인 전라감영 선화당(宣化堂)은 조선시대의 8개 도(道) 가운데 하나인 전라도의 행정, 사법을 담당하던 관찰사가 근무하고 업무를 처리하던 곳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이번 4차 협약식을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점점 속도를 내면서 양 지역의 상생협력의 '완(完)전(全)주(州)'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3차 협약 후 한 달만에 두 가지 사업을 추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협약한 사업은 '청년 스타트업 완(完)전(全)주(州) UP 사업'과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 사업'이다.

청년 스타트업 완(完)전(全)주(州) UP 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운영 중인 창업프로그램을 양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전주·완주 청년 창업가들을 체계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오픈지플래닛 전주센터에 운영하는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통하여 완주·전주의 청년창업 기반 강화와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다른 사업은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27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청년 스타트업 완(完)전(全)주(州) UP사업, 전북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전주 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4차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능력 확대이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이서 지역은 전주시의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와 연계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서 지역의 일일 하수 유입량이 계획수량을 초과하여 이서 지역 일대의 주택단지 조성 및 공공주택 신축 등 개발행위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수질복원센터 기술진단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을 추진해, 하수처리 시설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능력 확대로 전북혁신도시와 이서 지역의 개발행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에서는 청년창업과 환경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며 "상생협력사업이 주

민생활 전 분야에서 진행되어 양 지역주민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고 전주와 완주가 동반 성장해 우리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사업의 경증을 가리지 않고 중단없이 논의를 이어 나가 양 지역에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하길 바란다"며 "도 차원에서 전주시, 완주군과 함께 주민 복지 증진 위한 사업 발굴에 협업체를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500년 전부터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한 본거지인 전라감영에서 완주와 전주 주민의 상생과 어우러짐을 위한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

역의 경계를 넘어 전주, 완주 청년의 창업 기반을 공유하고 이서 지역 주민 편의의 증진을 통한 지역 개발의 발전을 함께 다지는 등 상생협력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우 시장은 이어 "상호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전북도와 완주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상생협력력을 통해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는 것에 대해 전북도와 전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주민편의와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3차 협약 사업도 도-전주시-완주군 간 실무협의체를 빠르게 진행해 구체화하고 있다. '도서관 문화협력 사업'은 2월 초 실무협의 후, 양 지역 주민이 거주지 인근 도서관 어디에서나 회원가입과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 전주풍납하수에 전주, 완주 주민 재거가 입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하는 사업은 2월 초에 실무협의 완료하고 전주시 풍납하수 운영위원회 개최하여 입사생 자격 확대 등을 의결했으며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 개정하여 하반기에는 입사생을 확대 모집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발표회 개최

### 산학연 협력 강화... 친환경 전기차 산업 육성 다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에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2022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사업단에서 진행한 2022 성과발표회는 지난 1년간 '전북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에 참여한 수혜 기업들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강소특구의 미래 추진전략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과발표회 진행은△2022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 성과 발표와 △강소특구 발전전략 및 2023년도 추진계획 실행 △참여기관 감사패 수여 △연구소 기업 현판 수여 △수혜기업 78개사 전시 부스 기업홍보 △이노폴리스 창업 데모데이와 기업간 교류로 진행되었으며, 지자체·지역혁신기관 및 특구 관련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군산강소특구는 2020년 7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분야 특구로 지정돼 지난 2년간(2021~2022) 전기차 클러스터 수요 기반 유망기술 발굴 및 단계별 혁신기관 매칭 기업사업회를 추진해, 연구소기업 13개 설립,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출자 56건, 창업 24건, 투자유치 138억원을 연계하

였고, 이를 통해 사업수혜 기업의 매출 117억원, 일자리 창출 533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군산강소특구는 △정책 네트워크, △기술 네트워크, △기술사업화연구회를 구성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윈윈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여 선순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군산강소특구의 혁신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맞춤형 성장지원은 타 특구의 모범 사례로 전라북도 기술혁신 기관의 집적 및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올해 전북도는 군산시, 군산강소특구 사업단과 함께 기술 출자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 창업 육성 등 전북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으로 국내 최고의 전기차 부품 소재 중심의 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친환경 자동차 육성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군산강소특구가 전국 최고의 강소특구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 전북도,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전북도는 대회 155일 앞둔 27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실국별 협력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서는 기반시설 조성, 사전·사후 관광프로그램, 도 홍보관 운영, 대테러·안전관리, 시·군 영의과정활동 지원 등 5개 분야 24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의 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차질 없는 대회 추진을 위해 상·하수도, 주차장, 대집회장,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직소천 과정활동장 등 잼버리 기반시설이 대회 전 완공되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사전·사후 관광, 운영요원(IST) 전북관광프로그램,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 전북도, 잼버리 성공개최 위해 도-실국별 협력과제 내실화 박차 세계잼버리대회기반시설... 공정 계획대로 차질 없는 진행 '민전'



문화체육관광부를 진행해 잼버리 개최 효과가 14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전북 재방문을 유인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테러·안전관리, 소방안전, 식중독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영지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제로화

를 위한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도·시군 홍보관은 주요시책 및 미래비전을 홍보할 절호의 기회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한다.

시·군 영의과정활동 자원봉사자 모집·선발 참가자 및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도내 우수 문화예술프로그램 공연, 분노처리 한식작업영역구역 변경 조정 등 대회 운영 기간 실제 필요한 사항도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남은기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협력과제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대회 개최가 155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각 협력과제별 세밀한 지원준비에 만전을 기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봄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환경 특별 안전점검

### 도내 426개 초등학교 주변 5개 분야 실시

전북도가 봄 개학기를 맞이하여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환경을 차등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및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도내 426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놀이시설 등 5개 분야에 대해 도·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점검,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단속하며,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상태도 집중 점검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단속반 운영을 통해 교육환경보호

구역 등 불법영업행위(음란 퇴폐행위 등) 집중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주류판매, 유해 매체를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내 급식소 위생 및 식중독 예방 실태에 대한 점검과 학교 매점, 식품안전 조리 등을 지도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에 선전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호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점검과 낡고 오래된 간판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에 추가로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놀이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상태와 키즈 카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환경, 보건, 식품, 위생, 소방분야에 대한 안전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제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욱 교수**

- ▶ 전북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원로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교 도전에 면접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등변협의 원로회장
  - 전북의제교육원 및 기획, 단과 특강교수
  - KBS TV아침매일, MBC TV, JT, TBS로 원로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서서 '365스피치에너제이션'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평생교육사, 시낭송시도자 등 각종 소수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임)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인접 시·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간과정에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